

천국은 마치

7강. 혼인 잔치 비유(마태복음 22:1-14)

돌아보기

1.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
2. 지난 강의 때 기억에 남는 것은?
3. “혼인 잔치 비유”를 읽고 느낀 점은?

📖 '혼인 잔치 비유'(마 22:1-14) 읽기

- 개역개정 → 새번역 → 새한글 → 메시지 성경 등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보기
- 비슷한 평행본문(눅 14:15-24) 읽어보기

📖 '혼인 잔치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장치

- 혼인 잔치
- 임금, 아들, 종들, 예복

📖 '혼인 잔치 비유'의 문맥

- 마 21:1-27 :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예수님을 향한 권위에 대한 논쟁
- 마 21:28-22:14 : 세 가지 비유 (두 아들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 잔치 비유)
 - 하나님의 뜻을 거느리고,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초대에도 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
- 마 22:15~46 : 세 가지 논쟁(납세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
- 마 23장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 선포

📖 주후 1세기의 상황

- 유대 혼인 예식은 정혼과 결혼을 거쳐 며칠간(약 7일) 지속되는 잔치로 완성됨
- 유대 사회에서 초청 거절은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수치스러운 모욕이고, 보복은 필연적 절차임
- 예복은 손님이 준비하든 주최 측이 제공하든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례복임

📖 '혼인 잔치 비유' 속으로

-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3가지 비유 중 하나
-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 비유 :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회복, 교제를 나타냄
 - ex) 구약의 혼인 비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가나의 혼인 잔치), 계 19장의 어린양의 혼인 잔치
- 혼인 잔치에 초대 받은 사람들의 반응(3) :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여 거절함 (구속사의 역사)
 1. 자기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4-5) : 지위 있는 지도자들, 2번 거절, 말도 안되는 핑계
 2.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6) : 종교 지도자들(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등), 임금이 진멸하고 불사름(7)
 3.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8-10) :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마 10:6), 무조건, 무차별적인 초청
 4.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12) : 단 하나의 조건(예복) (롬 13:4, 골 3:12, 계 19:7-9)

자기 의를 고집,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거절하는 자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마치 풍성한 혼인 잔치를 준비하여 초대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성도는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에 합당한 예복(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로써의 옳은 행실)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

[다음 마지막 강의(11/16)] 마태복음 25:1-13 “열 처녀 비유”

[새번역 성경]

열 처녀의 비유

1 “그런데,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찾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였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5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7 그 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8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10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12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다’ 하였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한글 성경]

열 처녀 비유

1 “그때에 하늘나라는 열 처녀의 경우와 같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2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섯 명은 생각이 짧고 다섯 명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3 생각 짧은 처녀들은 등불은 켜고 있는데 올리브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4 한편 생각 깊은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담긴 올리브기름도 켜고 갔습니다.
5 신랑이 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신랑이 옵니다! 나가서 그를 맞이하세요!’
7 그때에 바로 그 처녀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깔끔하게 손보았습니다.
8 생각 짧은 처녀들이 생각 깊은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올리브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려무나. 우리 등불이 꺼져 가고 있어.’
9 그러자 생각 깊은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하고 너희하고 같이 쓰기에는 확실히 넉넉하지 못할 거야.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도록 해.’
10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11 나중에야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에게 열어 주세요!’
12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합니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날도 그 시간도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메시지 성경]

열 처녀 이야기

1~5 “하나님 나라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찾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똑똑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없이 등잔만 가져갔다.
똑똑한 처녀들은 등잔에 넣을 기름을 병에 담아 가져갔다.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6 한밤중에 누군가 소리쳤다. ‘그가 왔다! 신랑이 왔다! 나가서 그를 맞아라!’
7~8 열 처녀는 일어나 등잔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한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잔이 꺼지려고 하니 기름을 좀 빌려다오.’
9 똑똑한 처녀들이 대답했다.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거라.’
10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다. 신랑을 찾으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11 한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12 그가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